



거룩한 사랑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공식 간행물
에큐메니컬 선교회와 성지

“거룩한 사랑에 반하는 진리는 없다.”



하나되신 성심의
자녀회 연례 모임
3 페이지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신성한 뜻의
축일
4 페이지

하느님 아버지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6 페이지

지극히 거룩한
묵주기도의 축일
7 페이지

과달루페의 동정 마리아 축일
10 페이지



온라인 생중계 방송

매일 저녁 기도 모임 - 동부 시간 오후 7시

www.holylove.org

거룩한 사랑은 '거룩한 사랑'과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영적 여정'을 세상에 보다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일 년에 두 번 출간됩니다.

2018년 7월 -12월

제5권. 제 2호.

2 에큐메니컬 선교회와 성지

“거룩한 사랑에 반하는 진리는 없다.”

3 하나되신 성심의 자녀회 연례 모임

4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신성한 뜻의 축일 /
복되신 어머니의 생신

6 하느님 아버지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7 지극히 거룩한 목주기도의 축일

10 과달루페의 동정 마리아 축일

12 마라나타 성지의 크리스마스

HOLY LOVE MINISTRIES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37137 Butternut Ridge Rd.

North Ridgeville, Ohio 44039 USA

성 토마스 아퀴나스

웰컴 센터: 440-327-8006

선교회 팩스: 440-327-8017

메시지 듣기/신청: 440-327-5822

기도 청원 신청: 440-327-8039

이메일 주소: mamshl@holylove.org

기도 신청 이메일 주소: prayers@holylove.org

자원 봉사자: volunteers@holylove.org

체험담 제출: testimonies@holylove.org

정기 간행물 거룩한 사랑 : magazineeditor@holylove.org

웹사이트: www.holylove.org

www.holylovekorean.com



에큐메니컬 선교회와 성지 “거룩한 사랑에 반하는 진리는 없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모든 교파를 초월한 에큐메니컬 선교회이며 성지입니다. 이 에큐메니컬 선교사업과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천상은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으로 개인적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거룩한 사랑은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가장 큰 두 계명입니다. 이것은 곧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한 뜻이며, 복음 메시지의 실현이자 십계명의 구현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는 목격 증인인 모린 스위니-카일 (Maureen Sweeney-Kyle)을 통해 주십니다. 환시와 발현, 메시지는 198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후 예수님과 복되신 어머니, 그리고 수많은 성인이 거의 매일 모린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들은 모든 이를 사랑 안에서 하나로 일치시키기 위한 에큐메니컬 운동의 일환으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선교사업의 목적과 초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부 메시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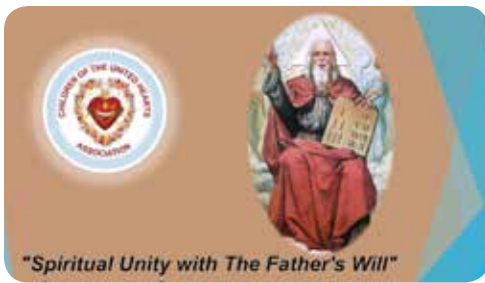
“이 선교사업은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와 이곳에서 풍부하고 명백하게 나타나는 수많은 초자연적인 은총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영향을 주어야만 한다. 이 선교사업은 모든 세대와 모든 국가들과 모든 이데올로기의 회심을 가져오기 위해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것이다.” (고통의 성모님 - 2011년 9월 15일 / 자정 기도 모임)

“이 선교회와 성지, 그리고 메시지는 모든 이가 영감과 은총과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원천으로 남을 것입니다. 모든 이는 이곳에 와서 그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사랑 가득한 이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 2012년 1월 20일)

“이 선교사업의 전체적이며 유일한 목적은 오직 사람들이 마음에 거룩한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비워내게 함으로써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이 모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랑은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영혼 안에서는 군림하지 못한다. 거룩한 사랑보다 온갖 걱정을 더 앞세우는 마음에는 진리를 위한 자리가 남아있지 않다.” (예수님 - 2012년 1월 17일) ■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모든 신앙의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기도는 보편적 언어입니다.

모든 순례자는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천상이 이 성지에 내리는 평화를 함께 누리기를 초대합니다.



하나되신 성심의 자녀회 연례 모임 -2018년 8월 4일-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8월 4일 토요일, 하나되신 성심의 자녀회의 기도 그룹 리더들을 위한 제 7차 연례 모임을 주최했습니다. 하루종일 진행된 이 모임은 111명의 기도 그룹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라나타 샘과 성지의 아퀴나스 센터 강연 홀에서 열렸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하나되신 성심의 경당에서 열리는 7시 저녁 기도 모임에 앞서 많은 관심 속에 행렬 의식과 행사를 마무리 짓는 장미 봉헌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기도 그룹 리더들은 경당 입구에 줄을 서서 성모님께 바칠 줄기가 긴 아름다운 흰 장미를 한 송이씩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중앙 통로를 따라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의 성상 앞까지 행진하여 우리 천상 모후의 생신(8월5일)을 기리며 사랑이 넘치는 공경의 표시로 성모님의 발 아래 겸손히 장미를 놓아 드렸습니다.



‘하나되신 성심의 자녀회’는 에큐메니컬 평신도 단체로서 45개국의 2,50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12년 3월 4일 성모님께서 설립하셨으며, 매일 세상의 마음을 하나되신 성심께 봉헌하는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올해 모임의 주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과의 영적 일치’였습니다. 강연자들은 이 주제의 여러가지 면을 다루었습니다:

- 남은 (신자들의) 교회란 무엇인가
- 십계명을 따르며 사는 삶을 통한 일치
- 생명에 관한 핵심적 도덕 교육
- ‘하느님 아버지의 뜻과의 영적 일치’란 무엇인가
- 모든 이가 마음에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이면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
- 남은 신자들의 수를 늘리고 강화시키는 방법



8월 5일 일요일에는 하나되신 성심의 자녀회의 기도 그룹 리더들이 오후 3시 기도 모임과 약속된 성모님의 발현이 있기 전에 진행되는 행렬의 선두에 서서 ‘하나되신 성심’의 성지까지 행렬을 이끌며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신성한 뜻의 축일’을 기념하고 또 복되신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해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성지에 모인 수천 명의 순례자들과 함께 기도를 바쳤습니다.

하나되신 성심의 자녀회의 기도 그룹 리더들은 주말 연례 모임 참석 때 그들이 배우고 경험했던 모든 것을 그들의 기도 그룹과 나누기를 갈망하며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신성한 뜻의 축일 /

“나는 나와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이들을 지지해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내 축일이자 거룩한 성모의 생일인 8월 5일, 하나된 성심의 별판에서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다시 한 번 나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내려줄 것이다. 별판에 있는 이들은 이 축복의 효과를 느끼게 될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 - 2018년 6월 11일)

하나되신 성심의 성지에서의 오후 3시 기도모임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어졌습니다.)

저는 (모린) 다시 한 번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아버지다. 나는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가로질러 왔다. 아무것도 나에게 제약을 가하지 못한다. 오늘날 인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

이면서, 그 소리가 성령의 목소리를 차단하도록 내버려둔다. 이것이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너희 마음 속에 평화가 먼저 있지 않으면 세상에도 결코 평화가 오지 않을 것이다.”

“너희 마음속에서 평화를 파괴하는 것들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탄이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그는 세상을 장악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사탄이 너희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거룩한 사랑보다 앞설 때는 언제나 사탄이 현순간을 장악하게 된다. 국가들은 이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내가 엄숙히 말하지만, 자유의지가 내 뜻에 도전하거나 내 뜻을 억누를 때 죄가 승리하게 된다. 그러면 악이 인간의 마음을 장악해 생각과 말과 행위를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독재 정부가 되고, 사람들은 폭력의 충격에 점점 더 익숙해지다가 결국에는 폭력이 아주 흔한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부정적인 행태는 어쩌다 나타나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 인 것이 되어 버렸다. 인간 생명은 더이상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의 가치관 중 첫번째로 사라진 가치관이며, 이것은 도덕적 가치관의 생리를 바꿔놓았다.”

“미묘하지만 심오한 이런 도덕적 변화들은 인간 역사의 행로를 결정하였다. 미래는 죄의 수용과 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결여로 점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부득이하게 내가 직접 나서서 나의 감정을 알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교정의 손을 내리기를 원치



복되신 어머니의 생신 - 2018년 8월 5일

않지만, 부성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사랑하는 아버지는 당연히 그들을 바로잡아 준다. 온 인류와 나와의 이런 부성적인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정치나 사업, 그리고 모든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모두 아버지가 자식을 바로잡으려는 내 사랑어린 손길이 지상을 방문하는 것임을 깨달아라. 나의 이 손길은 사랑에 감싸여 너희에게 다가오는 것이니 그것을 나쁘게 보지 마라.”

“사랑은 다른 이의 안녕에 대한 염려, 신뢰, 또는 순종 등 많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나는 인간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각 영혼을 사랑한다. 나는 각 영혼에게 내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 명한다.”

“나는 있는 나다. 나는 너희가 쉬는 모든 숨의 일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너희가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을 때도 너희를 보호해왔다. 거룩한 성모의 생일인 오늘 나를 공경해주어 고맙다. 나는 생일이 없다. 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존재한다. 나는 이곳 성지에 속한 땅과 건물들로부터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포함해 계속해서 이 선교사업의 모든 면을 보살핀다. 너희가 찾고자 한다면 부드러운 바람, 이른 아침의 해돋이, 나뭇잎들의 바스락거림, 그리고 얼굴에 느껴지는 따스한 햇살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 나는 또한 선한 영감들 안에 있으며 너희의 모든 기도의 일부다. 위험과 악을 드러내 보여주는 이는 바로 나다. 또한 어려울 때 너희에게 인내심을 주는 이도 바로 나다.”

“나의 베푸는 은혜는 완전하며, 그 증거인 이 선교사업 안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중상하는 주장으로부터 보호하며 너희를 겨냥해 사탄이 준비한 온갖 공격 속에서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어떤 악도 이 선교사업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내 뜻의 부(富)에 대한 내 증언이다.”

“나는 웅대한 내 은혜를 너희에게 나눠준다. 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너희 각자를 불렀다. 나는 내 부르스에 응답한 너희의 충실함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내 자녀들아, 이제, 지금 이 현 순간에, 나는 너희에게 나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내린다.”

에페 5:15-17: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하느님 아버지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선악에 대한 분별의 은사가 담긴 내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혼들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신성한 뜻의 축일 - 2017년 8월 6일)

✚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은 매우 강력한 축복이며, 이 축복을 얻으려면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다른 축복들처럼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달될 수 없다. 그러나 내 축복이 내릴 때 너희가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나 가지고 다녔던 모든 것들이 내 축복을 받는다. 이 축복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하는 분별의 도구다. 이것은 영혼으로 하여금 내 부성적 성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도록 이끈다.” (2017년 8월 7일)

✚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은 이곳 성지의 대기에 스며들어 있는 진리를 강화시킨다. 영혼들이 이 축복을 얻으면 좀 더 쉽게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며 동시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거룩한 사랑에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다. 만약 영혼들이 이 축복에 협조한다면 영혼들의 미래 뿐 아니라 전반적인 세상의 미래 또한 바뀔 수 있다.” (2017년 8월 18일)

✚ 우리의 모후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은 마음에 관한 것이며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은총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은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게 전달될 수 없다. 그러나 물건이든 성지든 모든 것이 아버지의 현존 안에 있었다는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 (2017년 8월 22일)

✚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또다른 은총 즉, 내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온다. 이것은 여느 축복과는 다르다. 이 축복은 두 가지 다른 영향을 준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은총은 마음속에 주어지는 것으로 이것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이차적인 은총은 사람들이 지닌 모든 물건과 옷, 유물 등에 내려지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이 물건들에는 내 현존이 깃들게 될 것이지만, 이것들은 치유에 사용될 수

없다. 이 두 가지 축복 또는 은총 중 어느 것도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또는 물건에서 물건으로 전달될 수 없다. 이 축복은 자주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오직 그 자리에 참석하는 이들만 얻을 수 있다. 영혼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되면 그는 내 앞에서 자신의 영혼 상태가 어떤지를 좀 더 잘 헤아려볼 수 있다. 이 축복의 영향은 하나된 성심의 벌판에 있는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건물이나 차 안 등 성지의 다른 곳에 있는 이들은 이 축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된 성심의 중요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2017년 8월 23일)

✚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지금 이 시대에 주게 될 것을 영원에서부터 알고 있었다. 이것은 마음속에 있는 선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이것은 내 자녀들을 내게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2017년 8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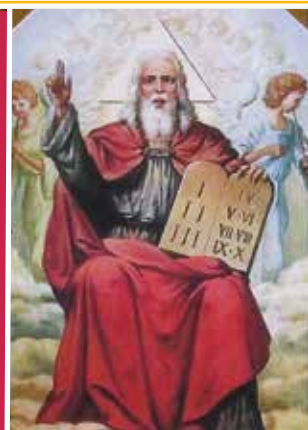
✚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이 시대의 위험을 가지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악에 맞서 기도하도록 너희를 일치시키기 위해 오는 것이다. 오늘 이곳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도 이와 똑같은 이유에서다. 이곳에서의 그분의 노력은 유례가 없는 것이다.” (묵주 기도의 동정 마리아 기념일 - 2017년 10월 7일)

✚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현재이며 하늘과 땅의 창조주다. 지난 토요일 (2017년 10월 7일, 거룩한 묵주기도의 축일에 있었던 발현), 마음속에 믿음을 지니고 이곳 성지에 와서 내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받은 운이 좋은 이들은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들의 마음은 내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야만 한다. 또한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야 한다. 이곳 선교회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신심 또한 더욱 강해져야 한다.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기로 갈망해야 한다. 이 축복의 좋은 열매들은 진리 안에서 선을 연합하고 악을 드러내어 세상의 마음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 축복을 통해 주어지는 은총에 대한 각 영혼의 협력이다.” (2017년 10월 9일)

다음 발현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하느님의 자비심의 축일 - 2019년 4월 28일

“나는 하느님의 자비심의 축일에 하나된 성심의 벌판에 올 것이다. 나는 예수가 발현하는 동안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내 축복’을 내릴 것이다. 축복이 내려질 때 내 아들이 그것을 네게 알려줄 것이다. 수많은 이들이 그 영향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는 내 가장 강력한 축복을 그곳에 모인 모든 이와 함께 나누기를 고대한다.” (하느님 아버지 - 2018년 12월 30일)



지극히 거룩한 묵주기도의 축일

2018년 10월 7일



“거룩한 묵주기도의 축일은 특별한 축일이다. 이 특별한 날에 이곳 성지에서 내 모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 - 2018년 8월 17일)

하나되신 성심의 성지에서의
오후 3시 기도모임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모후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
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많은 은총을 가지고 너희에게 왔다. 이 중 가장 큰 은총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에 내맡기는 은총이다. 너희가 내맡기면 아با 하느님께서 당신 손에 가득 담긴 수많은 은총을 너희와 나누신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사악하다는 점을 부디 깨달아라. 사탄은 이 나라의 분열과 정부 전복을 꾀하고 있다. 너희는 너희 나라 정당들 간의 선과 악의 대결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 외부 세력이 의로운 일을 하려는 모든 정당한 시도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도록 사람들에게 돈을 대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전쟁터다. 이 전쟁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승리를 거둘

지극히 거룩한 목주



수 없다. 사람들의 지혜가 안일함의 직격탄을 맞았기에, 오늘 나는 사람들의 양심을 깨울 수 있기를 바라며 왔다. 차기 대법원 판사(브렛 캐버너, Brett Kavanaugh)의 임명을 놓고 벌어진 이 전쟁은 지금 이 시대의 징후를 보여준다. 수십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일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너희가 선출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이가 단결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부 사람들이 악에서 비롯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나는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내 잘못된 자녀들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낚아채 오기 위해 너희에게 왔다. 계속해서 내게 저항하는 이들은 불행한 영원(eternity)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미 (지옥)불에 둘러싸여 있는데, 오직 진심 어린 뉘우침과 회심을 통해서만 그 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교회는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수난의 고통을 겪고 있다. 한때 충실했던 수많은 이들이 배교에 넘어가 버렸다. 그러나 미래는 전통에 기초를 두고 오류의 해를 입지 않은 부활한 교회를 약속한다. 그러나 지금은 속임수의 불길이 신앙의 진리의 핵심을 집어삼키고 있다. 순진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은 쉽게 속아넘어간다. 나는 내 보호의 망토로 내 남은 신자들을 감싸고 있다.”

“내 목주는 여전히 이 사악한 시대에 최상의 무기다. 진심어린 사랑으로 바치는 성모송 한 번이 수많은 이들, 심지어 일부 고위층의 마음속에 있는 오류의 불을 끈다. 나는 너희의 신앙의 수호자로서 모든 전투에서 너희와 함께 싸운다. 나는 너희가 생

각지도 못하는, 신앙에 대한 범죄를 본다. 또한 종교적 열정보다는 야심이 일부 성소를 지배하는 것도 본다. 악이 신앙의 적으로서 끈질기게 일하는 것처럼 나 또한 강력한 (신앙의) 수호자로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나는 남은 신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불어나도록 도와줄 것이다. 나는 남은 신자들을 내 성심의 방주 안에 넣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함께 거룩한 목주기도의 축일을 기념하는 오늘, 너희의 목주기도가 차기 대법원 판사의 임명을 도왔다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실제로, 진리가 선을 악으로 바꾸려는 노골적인 공격을 받았었다. 너희의 목주기도는 언제나 진리를 지지하는 내 남은 신자들의 생명줄이다.”

“너희 모두는 남은 신자들로서 나와 일치해 있다. 내가 너희가 멸망의 길로 미끌어져 떨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임을 알고 용기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라. 내 자녀들아, 너희의 기도는 천국으로 오르고 있으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것이다. 오늘 나는 너희의 모든 청원을 내 성심 안으로 가져가 내 아드님께 전해 드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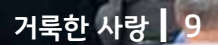
“오늘 나는 내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2018년 10월 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제 거룩한 성모의 축일에 세상의 마음이

바친 많은 기도 때문에 기쁘다. 이 기도들은 오늘날의 악과 맞서 싸우는 나의 무기가 된다...” ■





과달루페의 동정

2018년 12

“내가 내 과달루페 축일에 이곳 성지에 올 때 나는 수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이곳 성지에 항상 머무르는 천사들은 천국에서 오는 그들의 동료 천사들과 합류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 이신 마리아 - 2018년 10월 20일)

하나되신 성심의 성지에서의 오후 3시 기도모임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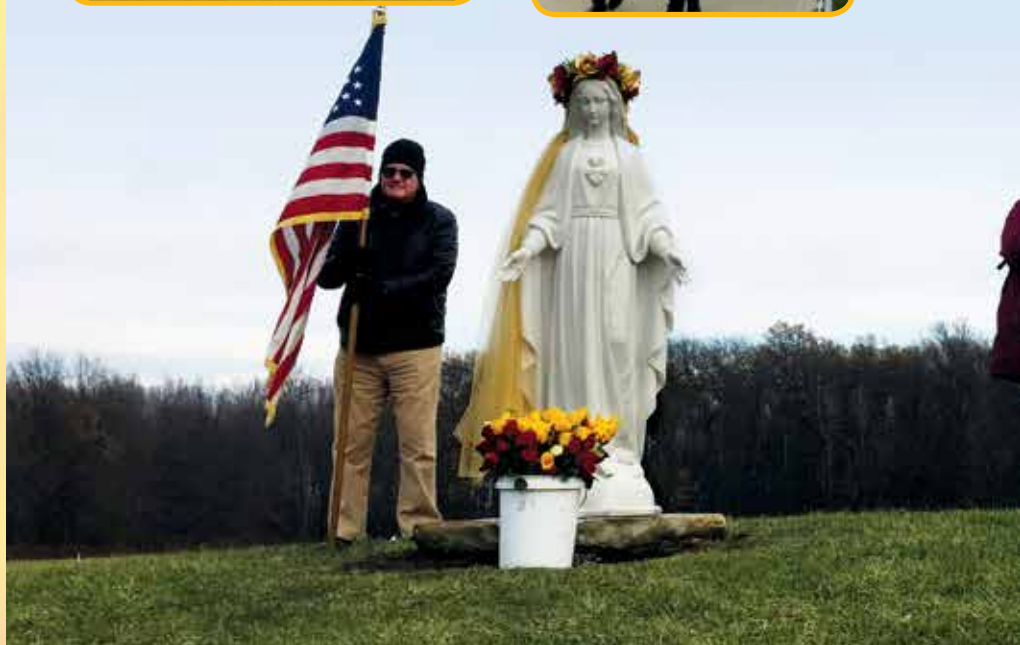
우리의 모후께서 과달루페 성모님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너희와 대화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너희 대부분은 세상이 극도로 허약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세상의 미래의 안녕은 소수의 선택된 지도자들과 그들이 마음속에 무엇을 진리라 여기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에 대한 인간의 대우 때문에 세상에는 큰 불안이 존재한다. 태내의 생명이 평화를 누릴 때까지 세상에는 참되고 지속적인 평화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낙태를 법적 권리로 받아들이는 한 나라들은 서로 전쟁을 벌일 것이다. 어떤 사상(이데올로기)들은 폭력을 수용할 것이며 진리를 조롱거리로 삼을 것이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함은 세상의 마음이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또다른 기회다. 만약 천상의 개입이 무시된다면, 이때까지 사랑 어린 마음으로 인내하신 내 아드님께서는 당신의 진노가 시작되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나는 그때가 되면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기에 두렵다.”

“열린 마음으로 이 메시지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의 교만을 시인하여라. 너희의 불신이나 미지근한 응답은 이곳의 천상의 개입의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하느님의 성심은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당신의 계명에 대한 무시와 무관심 때문에 대단히 슬퍼하고 계신다. 그분의 계명이 명령



정 마리아 축일

2월 12일



하는 대로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한다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나는 너희의 묵주기도와 다른 기도들, 그리고 희생들을 가지고 하느님의 정의의 팔을 매우 힘겹게 붙들고 있다.”

“너희는 이따금씩 강력한 허리케인이나 산불 또는 지진 등 전례 없는 자연 재해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진노의 작은 부분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인간의 마음에 그저 일시적인 인상만 남길 뿐 그들을 회심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나라의 법은 반드시 하느님의 계명을 따라야 한다. 각 나라는 이에 따라 하느님의 눈에 판별된다.”

“나는 너희를 꾸짖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무 늦기 전에 바로잡아주려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온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요즘에는 선물을 주고 받는 일과 세상의 물품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할애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가 받았거나 받게 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너희의 믿음이다. 너희의 믿음을 소중히 여겨라. 너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요즘 시대는 믿음이 크게 부정될 것이라 예언된 시대이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너희 신앙의 수호자이며, (이 칭호가) 승인을 받지 못한다 해도 이 칭호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게 청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려움속에서도 너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나는 주 예수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린다. 나는 나와 함께 있기 위해 오늘 이곳에 온 너희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나는 너희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 너희 각자는 나의 자녀이며 나는 너희의 천상의 어머니다. 내 아드님의 성심이 비탄에 잠기도록 만드는 세상의 마음의 회심을 위해 항상 기도하여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모든 청원을 내 성심 안으로 가져가면서 너희에게 내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내린다.” ■



마라나타 성지의 크리스마스

단과 저는 성지의 모든 후원자
여러분께 성지의 크리스마스를
매우 즐겁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단과 모린 카일
(Don and Maureen Kyle)



www.RosaryOfTheUnborn.com



손가락 묵주 짧은 태아묵주



확대된 묵주알



태아묵주(5단)

주문: 440-327-4532로 전화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Archangel Gabriel Enterprises Inc. 태아묵주 (5단) - \$29.95 짧은 태아묵주 - \$14.95

